

CULTURAL PRIME NUMBERS: 2, 3 AND 5

‘문화적’ 소수 : 2, 3, 5

Chang K. PARK,

Sun Bok BAE

충실대학교 (jaengol@hanmail.net), 서경대학교 (ckpark4g@gmail.com)

ABSTRACT

수학에서 하나의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로 자기와 다른 소수로는 표현되지 않는 독립성을 갖는다. 수학에서 1 보다 큰 자연수는 소수로 분해되듯이, ‘문화적 소수’로 문화를 분석하게 된다면 그 문화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성격상 문화를 자연수처럼 소수로 분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적 소수들은 역사적 사상적으로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음양론을 표상하는 2와 샤머니즘과 연관된 삼재론을 표상하는 3, 그리고 오행론을 나타내는 5를 문화적 소수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10 천간과 12지지 등을 해명한다.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샤머니즘에 뿌리를 갖는 삼재론이 음양오행론과 습합하여 한국문화의 원류를 형성하였다는 우실하의 주장에 근거하여 2, 3, 5라는 문화적 소수들 가운데 한국문화에는 3이라는 수에 보다 큰 질적 가중치가 실현되었음을 보이려고 한다.

1 들어가는 말

문화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저평가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문화와 수학과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문화에서 수학은 서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어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유클리드의 <원론>이 서양문화에 끼쳤던 영향과 비교한 결과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원론>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간되었고 학문의 전형으로 인식되었으며 수학의 영역을 넘어서 서양문화를 세운 하나의 축으로서 평가되고 있는데 반해, 동양문화에서 수학은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탐구되었고 문화전반에 어떤 큰 지배력을 행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양문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동양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수로 표상되어 있었고 이렇게 표상된 수는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담지하여 사람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을 상당히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에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로 정의된다. 따라서 하나의 소수는 자기와 다른 소수로는 표현되지 않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자연수들은 소수들로 분해되어 표현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소수의 곱으로 환원될 수 있다. 괴델이 불완전성정리를 증명하는 데에도 이러한 성질을 활용하는데, 소수의 중요성은 자연수를 한 가지 방식으로 ‘소인수분해’ 한다는 데에 있다. 소수가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자연수를 표현하는 것과 같이, 문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적 소수’로 문화를 ‘소인수분해’하여 취급하게 된다면 그 문화의 정체성은 명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마치 소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구성요소들의 결합으로 그 문화는 표현되고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수학에서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란 역동적이고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에서 사용되는 시원적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나 구성요소가 상호 독립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개념적 독립성이 수학처럼 보장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사상적 맥락에 따라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가 가진 역동성으로 인해 문화를 분석하는 ‘문화적 소인수분해’는 수학과 같이 반드시 한 가지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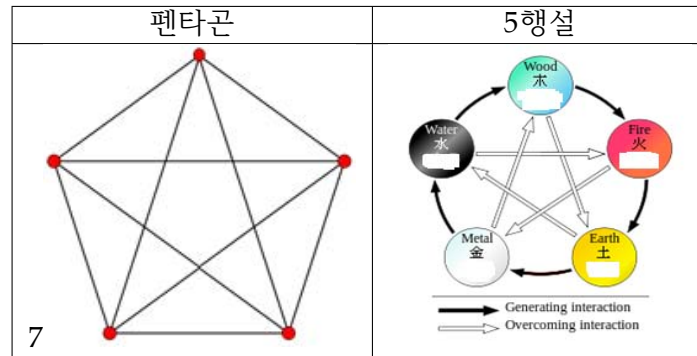
수학에서와는 달리 문화 분석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즉 문화 분석의 구성요소들 간에 개념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기가 쉽지 않고, 개념적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할 지라도 그 문화를 개념적 독립성을 가진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의 유일성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소인수분해하는 시도가 무의미 하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적은 요소들을 가지고 많은 문화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리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적 소수는 수학적 소수와는 달리 다른 또 하나의 성질을 갖는다. 그것은 문화를 분석하는 것이 질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기도 한 것이지만, 문화적 소수가 문화권에 따라 질적 가중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문화적 소수들은 수학적 소수처럼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같은 문화적 구성요소를 지닌다 할지라도 문화권이 다르면 질적인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문화적 소수가 다른 것 보다 더 중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특정 소수의 지수가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에서 가장 작은 소수는 2이며 그 다음은 3이고, 5는 세 번째 소수이다. 그런데 이 세 소수들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는 음양론을, 3은 샤머니즘과 연관된 삼재론을 그리고 5는 오행론을 각각 표상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세 수가 수학에서 소수인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어느 정도 고유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다른 여러 문화현상들을 해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점에서 2, 3, 5를 ‘문화적 소수’-라고 명명하고, 특히 한국문화는 이 문화적 소수들 중 3의 질적 가중치가 높은 즉 양적으로 표현하면 3의 지수가 크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이 글은 우실하의 저서 『전통문화의 구성 원리』에서 주장한 한국인의 “문화 구성 원리”에서 크게 도움을 받았으며, 그의 주장에 대한 수학적 이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문화적 소수 : 2, 3, 5

전술한 바와 같이 2와 3과 5는 음양론과 샤머니즘과 연관된 삼재론, 오행론을 각각 가리킨다. 이 세 수가 표상하고 있는 바가 오랫동안 고대 동양문화를 지배했다고 해도 중과부언이 아니다.

음양론에서 2의 소수체계는 참과 거짓, 어둠과 밝음,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등 오직 두 가지의 기본적인 논리적 가치 만에 기초하면서, 그들의 상징적 기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조합에서 전개되고 융해된다. 음양의 이가 체계를 처음으로 발견한 복희씨는 음--과 양-- 이 두 가지 효만으로 ☰ ☷ ☱ ☲ ☳ ☴ ☵ ☶ 라는 팔괘를 창조하였다. 근대의 라이프니츠는 복희씨를 이 상징들의 수학적 의미를 최초로 알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하였다. 라이프니츠는 왜 팔괘로서 우주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마도 신이 세계를 7일 만에 창조하였듯이, 복희씨도 그러한 계획의 비밀을 간파했기 때문에 팔괘를 고안하였을 것이라는 재미있는 추측을 하였다. 팔괘의 주기는 0, 1, 2, 3, 4, 5, 6, 7이라는 수열의 질서가 반복되므로 생긴 수리체계이다. 팔괘가 이러한 순환과정으로 생긴 것은 피타고라스의 옥타브 음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서 순환하므로 생기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복희씨의 중첩된 팔괘로 64괘의 알고리즘이 도출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삼재론이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 한반도로 이동한 민족 집단이 샤머니즘과 더불어 형성된 삶과 죽음과 세계,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우주의 궁극적 실재 (ultimate reality)에 대한 믿음의 형식이다. 고대 수렵사회는 원시사회로 삶과 죽음 사이의 현생에 대한 구분의 방안으로 삼재, 곧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원소가 필요하였다. 현생에서 삼원소 사이의 독립적 경계는 무당에 의하여 중재되는데, 무당은 현생과 영계를 대화로 잇는 중재자이다. 즉 무당은 살은 자와 죽은 자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은 대부분 써지지 않은 구술과 비전의 전승형식으로 보존되어 카발라 주의나 신비학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헌학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민속학적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삼재론은 우주에 대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삼가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삼재론이 다원적 수리논리의 가치에 기초한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무당 역할에서 볼 수 있듯이 현생과 영계 사이의 화해로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삼재사상이 고대문명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현생에서의 이러한 영적 세계의 질서를 편입하므로 삶의 긍정적 가치를 더할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인간의 심층심리구조를 파헤치고 융이 인간의 집단무의식의 존재를 부각시켰듯이 삼재사상 역시 오랜 동양사유의 전통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존립기반을 가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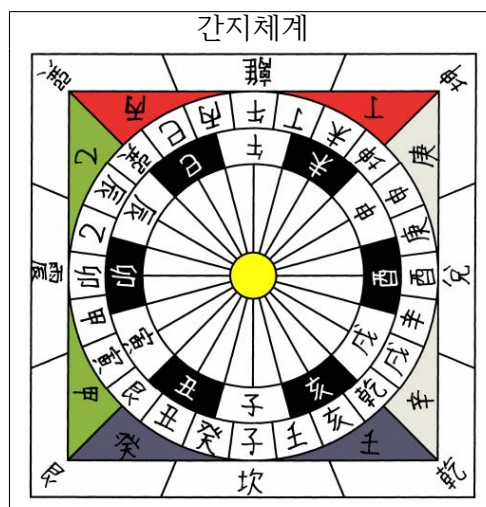
오행론은 원 안에서 동서남북 중앙이라는 다섯 방향으로 배열될 수 있어서 공간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오행이란 우주를 표상하는 금, 수, 목, 화, 토라는 다섯 가지 기본원소의 질료적 변형과정을 나타내고, 금성, 수성, 목성, 화성 그리고 토성이라는 천체현상을 공간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오행은 각각 그 배열과 방향에 있는 상호작용에 따라 우리가 펜타곤을 형성하는 선분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생성기능과 파괴기능을 갖는다. 이미 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양과학문화에서는 전통적인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에 의하여 각 행성들, 즉 떠돌이별들의 운행궤도의 위상학적 위치배열을 태양 중심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므로 태양 중심체계로 변형 된지는 약 500년이 채 못 된다. 이에 반하여 오행체계는 인간관계, 건강, 건축, 문화디자인, 음악, 언어, 정치,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풀이한다. 그들의 논리적 가치는 복수이고, 다르고, 다원적이어서, 그들 오행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생성하는 상호작용을 얻을 때, 조화로운 통일에 놓인다.

음양론, 삼재론, 오행론을 각각 표상하는 2와 3과 5가 문화적 소수가 되려면 음양론과 삼재론 그리고 오행론 사이에 서로 환원되거나 회귀될 수 없는 어떤 독립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때 독립성은 수학처럼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세계관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모든 경우를 다 검토해야 하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삼재론과 오행론이 가장 작은 수로 표상되는 음양론으로 환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자.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삼재론의 천, 지, 인중에서 양에 해당하는 천과 음에 해당하는 지를 제외하고 양과

음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는 인이 남게 됨으로써 삼재론을 음양론으로 완전하게 환원시킬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오행론도 양과 음으로 균등하게 분해하면 하나 즉 토가 남게 된다. 그런데 오행론이 2와 3 즉 음양론과 삼재론으로 분해된다는 견해는 문화적 소수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된다. 오행론을 음양론과 삼재론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학적으로 말하면 $2 \times 3 = 5$ 인데 이 때 +대신 $\times$ 를 넣은 것은 오행이 음과 양에 단순히 삼재인 천, 지, 인을 더한 결과가 아닌 어떤 특별한 연산이라는 뜻이다. 즉 이 연산에서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중 양에 목과 화를, 음에 금과 수를 각각 배당하고 오행의 주재자내지 원리로서 토를 삼재론의 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행을 음양과 삼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행론에 대한 피상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오행론에 음양론과 삼재론이 습합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해도 오행론에는 음양론과 삼재론으로 해명할 수 없는 ‘오행 상생의 원리’와 ‘오행 상극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에서 출발하여 4, 8, 16, 32, 64로 분화하는 2수 체계의 음양론과는 달리 삼재론은 0에서 출발하여 1, 3, 9, 27, 81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2를 건너뛰는 3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오행론에서는 주로 5수의 관계성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해명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수로서 2, 3, 5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 완전히 환원되거나 둘이 합하여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서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 3, 5를 ‘문화적 소수’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면 이들을 문화적 소수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0 천간과 12 지지와 같이 주로 수와 관련한 것이다. 10 천간은 기원전 1250년경 상 시대의 10일을 일주일 단위로 놓던 고대중국의 기수체계에서 유래하였다. 상 시대에는 10일(旬)을 주기로 10개의 태양이 나타난다고 믿었고, 천간은 각각의 날에 희생으로 받친 죽은 자의 명칭으로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라는 명칭은 신전에 새겨진 황제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 천간은 목성궤도를 관측하므로 형성된 12 지지 체계와 결합되어서 사용된다. 12 지지는 목성의 12년의 궤도를 모사하는 기술로서 정확하게는 11.85년에 해당되는 명칭으로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를 갖는다. 목성 주기의 12년은 일 년 12달, 12동물, 방향, 계절, 달, 24시를 분할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한반도에도 오랜 천문관측의 전통이 있어왔으며,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체계로서 12 지지 체계를 수용하여 내려오고 있다. 달력은 고대 동아시아 세계에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중국달력이나 한국달력도 모두 동일한 12 지지 체계에 속하고 있다. 간지는 갑자에서 출발하여 계해에서 끝난다. 이러한 방식에서 12와 10을 결합하여 갖는 60갑자가 생겨난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로 이루어진 10 천간은 오행과 음양으로 분해할 수 있다. 즉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갑과 을은 목에, 병과 정은 화에, 무와 기는 토에, 경과 신은 금에, 임과 계는 수에 각각 해당하고, 오행의 요소에 해당하는 각 쌍 중 앞에 것을 양으로 뒤에 것을 음으로 간주함으로써 10 천간은 해명된다. 12지지의 경우에도 목에 인과 묘를, 화에 오와 사를 금에 신과 유를 수에 자와 해를 각각 배당하고 각 쌍의 전자를 양으로 후자를 음으로 하되 토에는 축과 진을 양으로 미와 술을 음으로 간주함으로써 해명된다고 본다. 음양론은 오행론과 결합되어 음양오행론으로 발전하였는데 샤머니즘과 관련된 삼재론은 음양오행론과 달리 상대적으로 독자적 행태를 보인다. 이에는 사상적인 요소뿐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문화의 문화적 소수

한국문화와 역사전통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문명사회를 지탱해온 2, 3과 5의 소수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 모든 소수체계가 고대 동아시아 문명세계를 형성한 수학적 토대가 될지라도, 한국문화의 원형적인 소수체계는 특히 3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고유한 심성에 뿌리 박혀 발전되어왔다. 3수 중심 수리사상은 한반도의 백두대간의 동쪽을 중심으로 전래되었고, 음양오행으로 대표되는 2와 5 수리체계는 백두대간 서쪽으로 들어와, 역사진행과 더불어 3수 중심의 2와 5의 습합으로 완결된 원형수리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2는 5와 더불어 인간만사와 자연현상의 선형적 구조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형화된 사유패턴에 적합한 수리체계인 반면에 3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에서 심층적으로 발전된 샤머니즘에서 내려오는 수리체계이다. 3의 소수체계는 수렵과 유목생활에서 형성되어온 문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2와 5의 소수체계는 농경문화에 적합하게 수용되어 왔다. 2, 3, 그리고 5의 소수체계는 서로가 뒤섞이지도 않고 착종되지도 않는 독립성을 갖는다. 수렵문화에서 3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문화의 원형적 소수체계는 2와 5에 의하여 형성된 농경문화를 습합하여 발전하므로 동아시아 문명세계의 근원적인 가치형성에 기여하였다.

소수체계의 2와 5는 각각 음양론과 오행론으로 대표되는 점을 잘 알려진 사실이나,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 잡은 원형적인 3수의 형이상학적 표상과 세계관의 논리적 함축은 무엇인가? 2와 3의 소수체계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근원적인 논리 형이상학적 구성의 산물이다. 이들 체계는 고등문명의 과정에서 인간존재와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파악하는데 상호조절이 되었던 개념적 도구였다. 음양론이 오직 그들의 상징적 가치 음--과 양--만을 인정하였음에 반하여 오행론은 어떤 다른 원자적 존재를 고정시켰던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보편적 과정, 인간관계, 재산, 건강, 길흉화복 등을 기술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한국 샤머니즘에서 뿌리를 박고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 잡고 천, 지, 인을 대표하는 삼재사상의 3수 체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3가지 우주적 상징가치를 실현한다. 샤만, 즉, 무당은 이생의 삶을 저승의 죽음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삶도 죽음도 넘나드는 경계인이다. 수렵과 유목에 의한 삶의 방식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토테미즘이나 정령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러한 샤머니즘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심성에서도 삶과 죽음의 엄격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조화로운 통일적 세계관이 한반도의 산과 바다와 땅을 중심으로 남아있다. 모든 일생일대의 삶의 계기에 죽음을 걸고 있지만 이 경계를 쉽게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도약을 시도하는 이러한 수렵과 목축에 의한 유목민의 세계관은 3수 소수체계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3수 소수체계는 길이, 높이, 넓이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위와 중간과 아래, 크고 작고 가깝고 멀고를 조율하는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므로, 오행과정의 경계를 확정하고, 음양론의 약점을 중첩적으로 보강한다. 음양의 전체의 64괘는 팔괘의 중첩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도 3수 체계가 기여하고 있다. 팔괘의 각 괘는 음--과 양-- 각 효가 상, 중, 하에 조합이 되어 $2 \times 2 \times 2 = 8$ 을 형성한다. 3수 체계의 상, 중, 하는 각각 천, 지, 인이라는 삼재사상을 표현하였고, 팔괘의 중첩의 조합은 $8 \times 8 = 64$ 괘를 만들어냈다.

4 문화적 소수 3의 표현형식

한국전통 석기문화에서 이러한 삼재사상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건축, 전례의식, 색상, 고분양식, 무덤양식, 문양, 설화, 등 다양한 문화디자인에서 표출되어있다. 문자가 처음부터 고정성에 결부된 것이라면, 돌에 표출이 되어있는 상징 언어에는 되물을 수 없는 과거의 흔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전파의 질료성의 담지의 강도를 보증하는 한, 한반도의 전역에는 이러한 문물의 표현형식을 보여준다. 고려고분에는 주로 삼죽오가 문화적 소수 3의 표현형식을 갖고 있으며, 조선의 전형적인 왕실의 창살문에는 삼 태극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송례문 현판식의 서까래와 기둥 문에도 삼 태극문양을 관찰할 수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는 한반도에서의 국가와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설화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소수의 3이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표현되어 있다. 곰과 호랑이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태양숭배와 토테미즘은 중국북동지역과 극동러시아 지역에 산포되어있는 믿음체계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중국 북동쪽 요령지방과 한반도에서 고조선을 건립한 전설적인 한국민족의 창시자는 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에 관한 설화는 고려 『삼국유사』 이외에도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 중국 위수(魏收)의 『위서魏書』에 각각 전해진다. 단군의 조상은 천손(天孫)으로 그의 할아버지 환인(桓因)은 상제(上帝)이다. 환인의 아들 환웅(桓雄)은 산과 계곡이 있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하여서, 아들의 마음을 읽은 아버지는 풍사(風師),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는 3000 무리를 딸려서 태백산에 보내어 신시(神市)를 열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의술, 농법, 뜰질과 침술을 가르치게 하였다. 여기서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기도하자, 환웅이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것만 먹으라고 하였더니, 호랑이는 20일 후에 포기하고 동굴을 떠났고, 곰은 남았더니 여자로 변하였다. 여기서 웅녀(熊女)는 박달나무 곁의 신단수(神檀樹)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환웅이 웅녀를 아내로 삼아서 단군을 낳아 드디어 왕위에 오른 단군은 태백산의 아사달에 도읍지를 정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설화를 전한 일연은 당시 원나라의 수도에 들어온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단군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고, 단군신화에 드러나는 신적인 3수의 의미가 삼위일체와의 연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신화는 고대한국인은 하늘세계를 박차고 지상의 세계로 내려와서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양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매개하는 현실세계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삼재사상을 반영한다.

한국 태권도에서도 운동을 수행하는 주재자가 단군 형, 팔괘에 따른 품세를 그려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운동수행의 처음과 마지막 사이의 과정은 태극의 음양 동정과 강유를 반영한다. 운동수행의 출발점과 도착점에 이르기 까지 중심에서 사방을 향한 동작을 사람의 주먹과 다리와 발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3을 중요시 여긴다. 대한민국 국기의 태극디자인은 흰 바탕에 검은색의 건곤과 감리가 맞보고 있고 둥근 원에 위로는 양의 기운을 나타내는 적이 있고, 아래에는 음의 기운을 품는 청이 있다. 태극기 디자인에서 색깔은 홍, 청, 흑이다. 건은 하늘, 봄, 동을 지칭하며, 곤은 땅, 여름, 서이며, 감은 달, 겨울, 북을 지칭하고, 리는 해, 가을, 남을 지칭한다. 오행 방위는 목(동, 청), 화(남, 적), 토(중앙, 황), 금(서, 백), 수(북, 흑)이며, 인체의 비장(肝臟), 심장(心臟), 위장(胃臟), 폐장(肺臟) 그리고 신장(腎臟)을 담고 있다. 삼재사상이 음양 오행론을 가장 학문적으로 습합한 결실은 한글창제에 잘 드러나 있다. 한글에는 삼재원리가 •(하늘), ㅡ(땅), 그리고 丨(사람)라는 부호로 나타난다. 수 가운데 짝수를 양성모음과 인, 의, 예, 지, 신의 오상의 하늘, 홀수를 음성모음과 간, 심, 비, 폐, 신의 오장을 갖춘 땅에 배합시키면, 사람인 丨만이 자리(位)와 수(數)가 없이 “무극의 참과 이오의 정기가 묘하게 엉켜” 초중성의 발현을 구현한다.

5 문화적 소수 3의 다가 논리

음양론을 아리스토텔레스 이가 원리에 상응하는 논리구조를 갖는다고 간주하면, 삼재론은 다치 논리학의 한 부류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음양론이 음과 양이라는 형이상학적 기본가치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이가 논리의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적 가치설정과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창시된 이가 논리학은 서양논리학의 핵심적 가치로서 서양문명의 근본적 토대로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발전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폴란드에서 나치 독일군의 바르샤바 침공을 앞두고 삼자배척의 원칙 앞에서는 다치 논리학적 선택에 직면하므로 다치 논리학이 태동하였다. 2000년 이상을 지배한 이가 논리도 다치 논리학의 요구 앞에 한 걸음 비껴나간 것이라면, 동아시아문명권에서는 음양론이 삼신사상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역으로 삼신사상이 음양론을 습합하느냐의 문제 앞에 손쉬운 논리를 제공한다. 오랜 동아시아 전통은 양자병행 통합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경우는 백두대간 동쪽으로 삼신사상이 전래되었고, 서쪽으로는 음양사상이 유행하였지만, 삼신사상과 음양오행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한국전통문화의 문화 융합의 원형적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서양의 이가 논리학에 직면한 다치 논리학의 탄생배경에 또 다른 해결의 전형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의 이가 원리는 아주 견고하게 음양의 순환의 원리를 문화적 문맥에서 적용하므로 삶과 죽음 그리고 우주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였다.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이가 원리는 실제로 종교, 문화, 과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환원시키므로, 나와 너, 주어와 대상, 정신과 물질, 삶과 죽음 등의 경계를 분명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 점에서 음양의 이가 원리는 자연, 의학, 건축, 음악,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적용되었으며 오늘날 디지털문명의 이진법의 원형적 뿌리를 이룬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가 원리의 형이상학적 배경은 무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無極生有極, 有極是太極, 太極生兩儀, 卽陰陽: 兩儀生四象, 卽 少陰, 太陰, 少陽, 太陽. 四象演八卦, 八八六十四卦이다. 주역 64괘의 토대가 되는 팔괘를 창안한 복희씨는 우주의 근본적 실재를 상징하는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의 팔괘에 陰爻와 陽爻라는 이가원리를 삼중주를 쌓아서 단괘, 내지 소성괘라는 명칭을 갖는 상징체계를 창조하였다. 팔괘의 상징체계는 ☰ ☷ ☲ ☵ ☴ ☶ ☱ ☴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자연현상은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이다. 팔괘를 東이 離, 西가 坎, 南이 乾, 北이 坤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각각 45도 방위를 유지하도록 방향에 따라 배열할 수 있다. 이러한 복희씨의 팔괘를 일컬어 선천 도(Earlier Heaven)이라고 한다. 훗날 주문왕은 사물의 자연적 질서에 따른 복희씨의 선천 도에 인간의 심성을 반영한 東이 震, 西가 兌, 南이 離, 北이 坎인 방위를 갖는 후천 도(Later Heaven)를 작성하였다. 복희씨에서는 원 중심에서 천을 가장 꼭대기에 놓고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방위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면 사방이 나온다. 그러나 문왕의 후천 도에서는 이러한 완벽한 원 중심의 대칭관계는 무너지고 대신 엄격한 마방진의 사방이 등장한다.

무극에서 이가 논리를 토대로 64괘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음양 이외에 하늘과 사람과 땅에 해당되는 삼신을 기본으로 팔괘가 나왔다. 왜 음양을 삼중주로 쌓아 팔괘를 낳았고²³, 또 팔괘를 중첩하여 8², 육십사괘를 만들었는지는, 마치 십 천간과 십이지간이 합하여 육십갑자가 생겨난 이유에 대한 물음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질문은 동아시아의 고대문명의 원형 세계상 구성에서, 한반도에서의 삼신사상이 음양오행 사상을 습합하는 문명과정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세워진다.

오행은 의학, 음악, 점성술, 군사전력 등에 사용되었던 사물의 ‘운동’, ‘경과’, ‘단계’, ‘원소’ 등의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각각 금, 수, 목, 화, 토라는 순환적 상징체계를 갖는다. 오행은 일종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이클로 하나는 상생주기와 다른 하나는 파괴주기를 갖는다. 상생주기는 금→수→목→화→토, 파괴주기는 금↗목↗토↗수↗화이다. 회남자(淮南子)는 오행에 방향을 주었는

데, 그 방향은 금(서), 수(북), 목(동), 화(남), 토(중앙)이고, 색깔은 금(백), 수(흑), 목(청), 화(적), 토(황)이다. 오행은 팔괘의 방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오행의 방위는 색의 배치로 정돈될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 전통문화의 원류로 삼 태극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나가는 말

음양론은 전통적 동양과학의 토대로서 주역의 수리이론과 결합하므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원형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행 우주론은 17세기를 전후로 서양의 코페르니쿠스 이래의 태양 중심 세계관에 기초한 케플러 행성모델의 우주론에 경쟁적으로 대치되다가 급격하게 퇴조하여 지금은 문화 상징적 원형으로만 남고 있다. 오행이론의 강점은 색과 방향에 대한 탁월한 혜안을 제시하는 천문체계를 반영함과 동시에 전통 동양의학체계의 해명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삼재론은 전통적인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을 습합하면서 다치 논리학적 기초 위에서 다원적인 조화로운 세계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음양사상이 2를 소수로 하는 이가 원리를 조합법에 의한 토대에서 64괘를 완성하였다면, 오행사상은 전통적인 천문학적 관측체계인 천간과 지간의 조합에 의한 60갑자법과 결합하여 문명의 흥망성쇠와 세상만사의 길흉화복에 대한 점괘를 점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3에 대한 철학적 의미는 노자의 『도덕경』 42장에서 道生一一生二二生三萬生物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이라는 문구에서 보듯 만물의 화(化)를 향한 우주정형의 원형적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재론은 음양오행을 보다 다원적이면서 조화로운 사상형성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의 문화원형적 소수체계는 2, 3, 5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히 3에서 그 독특성을 보이며, 3에 의하여 음양오행이 보다 더 완벽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근대과학문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가 논리를 수용하여 영육, 정신과 물질, 죽음과 삶의 이분법만 인정하고 죽음을 몰아내므로, 기계론적 물질문명을 구축하였다. 음양론은 음양차서도(陰陽 次序圖)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진사유에 의한 세계만물의 변화를 쉽게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가 원리에 부합될 수 있었다. 삼재론의 다원적 논리구조는 고전논리를 딛고 물질적 우주에 대한 다원적 논리적 가치의 접근으로 새로운 문명형성의 가능성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와 3과 5가 문화적 소수라고 해서 서로 완전 독립적이거나 모든 문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소수들 간의 독립성은 역사적 사상적 맥락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지니며 그래도 의미 있게 문화를 해명한다.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수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처럼 ‘문화적 소수’를 활용한 문화에 대한 분석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G. Guenther, Idee und Grundriss einer nicht-Aristotelischen Logik, Hamburg 1991.
- J. Lukasiewicz, Aristotle's Syllogistic from the Standpoint of Modern Formal Logic,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Reprinted in 1987.
- R. F. Matzka, Klassische Kenogrammatik, Eine semiotische Ortsbestimmung, 2010.
- P. H. Richter, Science and Calendars in China and West From Clavius to Xu Guangqi and Schall, Bremen 2008.
- en.wikipedia.org/wiki/“Celestial stem”, “Earthly Branches”, “Fu Xi”, “Yin Yang”, “Ba qua”, “Korean Mythology”, “Chinese calendar”

-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 원리』, 소나무, 1998.
- 이기동,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 일연(김원중 역), 『삼국유사』, 민음사, 2008.
- 후웨이홍(이은미 역), 『왼손에는 명상록 오른손에는 도덕경을 들어라』, 라이온북스, 2010.